

■ 도, 제주 동부지역 영상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야외 촬영장 후보지 1순위 수망리 제시

환경면 실내영상스튜디오 대규모 촬영 한계 등 보완 1~3단계별 클러스터 구축 최소 800억대 인프라 구성 1단계 야외 촬영장은 80억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촬영장 시설인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전경.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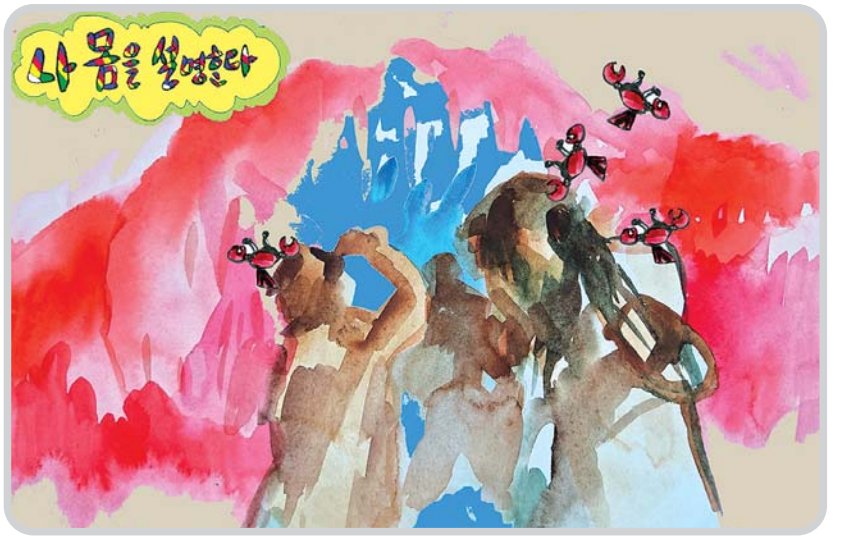
제주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 야외 촬영장(스튜디오)을 만드는 안이 나왔다. 제주도가 한국표준협회에 의뢰해 실시한 '제주 동부 지역 영상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 용역' 결과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이번 용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변하는 영상산업에 대응하고 다양한 영상 콘텐츠의 제주 로케이션 유지를 위한 중·단기적 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촬영장 시설인 제주실내 영상스튜디오와 역할 분담을 통해 제주 전역을 로케이션 장소로 확장하려는 취지도 있다. 16일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용역진은 제주도의 촬영 지원 일수가

2023년 408일에서 2024년 778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영상 촬영지로서 선호도가 높은 것에 주목했다. 최근 5년(2020~2024년)의 누적 촬영 지원 일수도 서울(4130일), 부산(3518일)에 이어 제주(2466일)가 세 번째로 많았다. 이 같은 흐름 속에 도내에는 시시각각 변하는 제주 날씨에 대응할 수 있는 전천후 시설인 제주실내 영상스튜디오가 2021년 개관했으나 지리적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고 대규모 촬영이 어려운 점을 들었다.

이에 제주의 최대 강점인 자연 경관을 포함한 야외 촬영 스튜디오 중심의 영상 클러스터 조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용역진이 제시한 사업비는 총 800억~1000억원 규모. 다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시급성과 수요를 감안해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단계는 평지 형태의 기반 시설과 관리동을 갖춘 야외 촬영장 조성, 2단계는 야외 촬영장 주변 백투(가변형 야외 스튜디오) 구축, 3단계는 수요

촉 등을 반영한 장기적 방안으로 대형 실내 스튜디오 건립과 부대 시설 확충이다. 1단계 야외 촬영장 최종 후보지로는 남원읍 수망리,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제주도 구좌읍 덕천리 부지 등 3곳을 추렸다. 이 중 1순위로 꼽은 수망리는 공유지로 민가나 주변 시설물이 거의 없어 보안이 잘 되고 평지가 넓어 야외 스튜디오 부지로 적합하다고 했다. 세 후보지 중 1곳에 야외 촬영장을 조성할 경우 공사비는 80억원 안팎으로 추산했다. 한편 지난 10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용역 결과를 거넨 박두화 의원은 "수도권에 가까운 다른 지역의 시설과 달리 제주로 이동하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데 야외 스튜디오를 사용하기 위해 제주를 택할지 의문"이라며 "보고서에도 제주는 장비와 자재 수급이 어렵고 높은 비용 구조 등 부담이 있다고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고재만의 제주어기림관 <504> 구성:(사)제주어보존회 <재만그림글자 용역>



하르바지 골멘: "야오덜아, 이제부터 제주도 오라동 양천형시인 이 썬 제주어시집 '게무로사 못살리카'엔 험디서 '나 몸을 설명한다'에 대신시 이악을 혀어 보켜."

나 몸을 설명한다

어느 트렁에 7살 들인 나 몸 제법 익어시난
또시 나 몸에 쫓 피와내정 왕왕작작덜 말라
갈 때 빈손으로 가커메
무신거라도 손에 쥐와주정 말라
벤벤헝기만 험다
소곰에 냉기는 건 문 추억이난 형상이 웃다
궁금헝텐 소곰을 들여다보정도 말곡

부애상헝게 귀롭지거나
요염헝 손뽀데기로 흠불로 던직시 말라
난 그자 중승 헝나이난 책임 못 진다
흘러가는 강물이 돌아오들 안 혀는 것추록
나도 흘러가문
또시는 안 오커메 잇일 때 잘 헝라

<자료 : 양천형 제주어 시집 '게무로사 못살리카' 도서출판 다홍>
<계속>

제주어 풀이

- *어느 트렁에: 어느새 *7살 들인: 가을이 들어
- *제법: 제법 *피와내정: 피위내려 *가커메: 갈 것이니
- *왕왕작작덜: 수선편지들 *쥐와주정: 쥐어주려
- *벤벤헝기만: 몹시 무겁기만 *부애상헝게: 화나게.
- *소곰을 들여다보정도 말곡: 속을 들여다 보려고도 말고
- *요염헝 손뽀데기로: 요염한 손으로 *중승: 짐승

올해의 청년 작가 김지훈·신민정·오지원

도문진원 2026년 작가 선정 멘토링 지원 등 연말 3인전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의 제32회 제주청년작가전에 참여할 올해의 청년 작가로 김지훈(31), 신민정(38), 오지원(31) 작가가 이름을 올렸다. 약 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16일 도 문화예술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공모에는 총 23명이 지원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1차 포트폴리오 심사, 2차 대면 인터뷰 심사를 거쳐 3명의 작가를 뽑았다. 선정 작가에게는 1인당 10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멘토 프로그램과 평론 지원이 이뤄진다.

멘토링과 전시 준비 과정을 거치며 각자의 작업 세계를 심화하고 전시 공간에 맞춘 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제32회 제주청년작가전 전시는 연말인 오는 12월 21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1~3전시실에서 펼쳐진다. 도 문화진흥원 측은 "선정 작가 3인의 작품을 통해 동시대 제주 미술의 현재를 살피고, 청년 예술가들이 열어갈 새로운 가능성을 조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제주청년작가전은 1994년 시작됐다. 제주 청년 예술가의 창작 역량을 발굴하고, 지역 미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제주도의 대표적인 청년 작가 지원 사업이다. 진선희기자

문화가 쫓지

동홍아트데이 5회 공연

올해로 15회째인 2026년 동홍아트데이가 '우리 아이 첫 무대 플레이 온 스테이지'란 부제 아래 6월부터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동홍동주민센터 동홍아트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동홍아트데이 일정은 6월 17일, 7월 15일, 8월 5일, 8월 19일, 9월 16일이다. 매회 오후 6시부터 7시부터는 본공연이 펼쳐진다.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어린이들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6월 첫 공연은 참여형 사이언스 매직쇼다. 사전 프로그램으로 마술액자와 솜사탕 만들기 체험이 준비됐다. 무료.

공예명작전 내년 제주 개최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찾아가는 공예명작전' 제주 순회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찾아가는 공예명작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공진원이 주관한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전국 4개 권역 13개 지역의 주요 문화 공간을 순회하며 국내 우수 공예 콘텐츠를 소개하는 전시가 진행된다. 호남·제주권 순회전은 2027년 1~2월 제주도 원도심 예술공간 이아에서 열린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작품을 통해 공예의 가치와 의미를 조명하는 자리로 30명 내외의 작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제주↔일본전세기 3월
특별한 가을 여행
오키나와 10.16(금)-18(일)
구마모토 10.31(토)-11.2(월)
선발권 특가 (한달간~7.15일까지) 1,099,000 → 999,000
※양국정부 인허가조건※

제주↔항주(룽에어)
매주 목요일 | 10명 이상 출발 | 3박4일
노팁! 노옵션! 노쇼핑!
황산 1,199,000원
오진 1,199,000원
상해 1,099,000원
광복절연휴 항주, 상해 4일
8.14(금)-17(월,대체휴일) 1,099,000원

오사카 4일 1,520,000~
후쿠오카 4일 1,550,000~
타이베이 4일 1,190,000~
카오슝 4일 1,210,000~
싱가폴 5일 1,440,000~